

과두부 종양으로 야기된 안모비대칭

서울 중앙병원 치과
김재승·장현호

안모비대칭에 대한 치료는 그원인 부위에 대한 진단 및 평가에서 출발한다. 물론 안모비대칭이라 함은 두개부 및 안와부의 기형까지도 포함하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비대칭 양상이 상악악골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문헌에서 하악골의 비대칭적 성장에 의해 상악골이 보상적 성장(compensatory growth)을 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 하악골이 안모비대칭의 직접적인 원인부위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악골은 몇개의 성장단위로 이루어지며 안모비대칭에 대한 분류도 이러한 각 부위가 비대칭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대칭이 위의 어느 한 부위에서만 일어난다면 그만큼 치료계획이 쉬워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두부, 우각부, 골체부등 각 부위의 비대칭이 복합되어 일어나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과두부는 비대칭의 원인 부위로서 가장 빈번히 관여된다.

이러한 비대칭적 성장이 과두부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그것이 단순한 길이 성장이 아닌 과두부 종양이라면 가능한 빨리 종양 부위를 절제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물론 악골비대칭이 오래 지속될 수록 치아의 compensation이 일

어나 수술만으로 정상적 교합과 원래의 악골 위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증례의 30대 남자 환자는 처음 내원시(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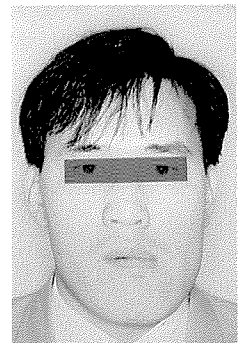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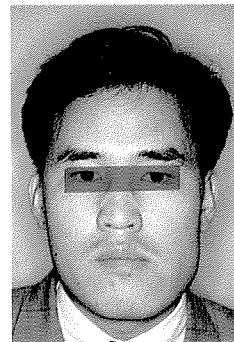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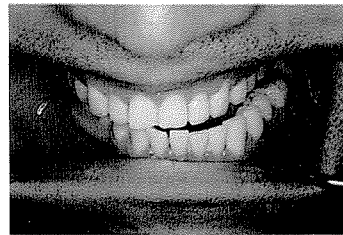


사진 1.

첫내원시에 비해
1년후 하악골의
양상이
더욱심화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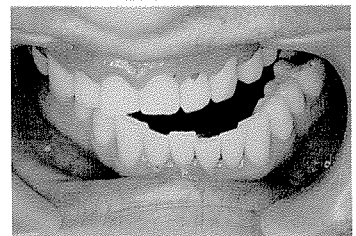




사진 2.
수술전 방사선
사진상에서
우측과두부
의 증식 및
종물의
실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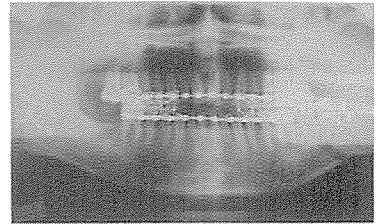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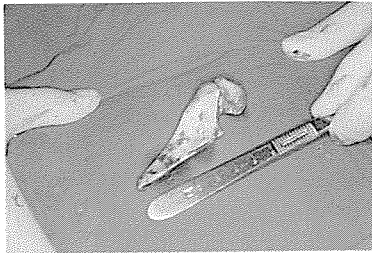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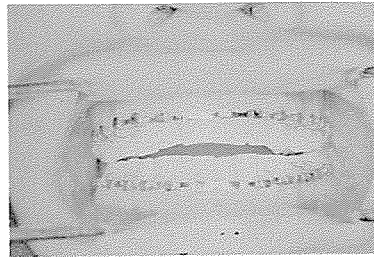


사진 3.
수술직후
방사선 사진
및 약간교정
제거 직후
개교증을
나타내는
모습.



1. 좌) 우측 과두부의 종물이 발견되어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환자 본인의 사정상 수술을 지연하다가 1년후(사진 1. 우) 하악골의 deviation이 더욱 심해져 수술을 받고자 재내원하였다. 물론 이때는 1년전에 비해 약간의 치아 compensation이 일어난 후였다. 수술직후 전치부 및 소구치 부위에 개교증이 발생하였는데(사진 3) 이는 종물이 제거된 뒤 과두부 길이가 다소 짧아진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 상태에서 일상적인 저작동 악골의 정상적인 운동을 하도록 유도한바 약 4개월 뒤 증절치부에 약 1-2 mm 정도의 개교증만이 남았을 뿐 비교적 안정된 교합 및 정상적인 하악골 운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사진 4.) 이러한 교합의 변화에는 1차적으로 종물절제술이 시행된 우측과두의 remodeling 으로 인한 길이 증가, 2차적으로는 다소의 구치부 intrusion 이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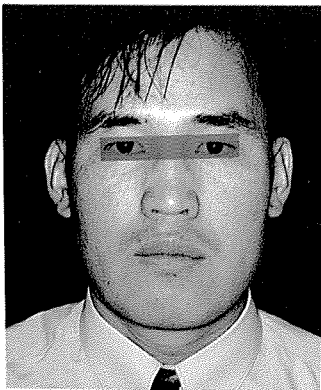


사진 4.
수술 약 4개월후 비대칭
및 전방개교증 해소된
모습

